

家門의 자랑스런 歷史와 傳統을 말하고 그 保全을 위해 노력하자

中央宗親會 會長 金鍾植



친애하는 종친여러분!

중추가절을 맞이하고 종친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오며 아울러 자금의 극심한 경제적

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데 대해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난세일수록 의연하게 품위와 충절을 지키신 조상님들의 가르침과 음덕이 오늘의 후손에게 발현될이라 여겨 다시한번 자랑스러운 가문의 후손됨을 긍지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앙종친회는 울들어 특히 크고 작은 종사(宗事)로 그 어느때보다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순천김문사상 처음있는 대동보편찬 추진을 비롯해 절재공 위상정립을 위한 책 출간, 그리고 하계 대학생 교양 강좌 개최 등을 통해 종친들의 화합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숭조사상을 드높이며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종사(宗事)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면을 빌어 참여하시고 후원을 아끼지 않은 종친들께 심심한 감사를 전합니다.

친애하는 종친여러분!

역사는 이제 새로운 천년의 밀레니엄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삶의 환경은 날로 좋아져 풍부한 물질과 편리한 기계 문명으로 어느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해도 과연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실로 살기 좋은 시대라고 할 현세에 부족할 것 없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활이 풍요로울수록 상대적으로 퇴색되고 있는 숭조사상과 미풍양속을 우려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을 우리모두 직시하고 있음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고 가까운 반세기 후에 올 우리의 역사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처럼 가문의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을 말하고 그 보전을 위해 노력하던 오늘의 이러한 종친모임이 그때까지도 존속해 있을까요? 우리 모두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당연 상황입니다.

종친여러분!

역사가 지속되는 한 우리 가문의 전통과 자랑도 영원히 전승되어야 합니다. 순간적인 개인주의적 삶보다는 모여 하나가 되는 더불어 사는 삶이 보다 소중하고 사람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어느때 보다도 가문의 화합과 결속, 역사와 미풍양속의 보전이 절실하다는 점에 관심과 우려를 같이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역할이 자손들에게 직접적이고도 소중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에 우리모두 순천 김문의 중흥과 발전에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상 최초의 명실상부한 대동보편찬이 되도록 지파를 초월한 전종친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순천 김문의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업적을 오늘에 되새기고 후세에 권하기 위해 그 위상을 정립하

고 알리는 사업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출간된 조선조 만고의 충신 절재공 일대기인 "거칠것이 없어야"의 출간을 자축하고 폭넓은 홍보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우리 가문을 알려야 하겠습니다.

종친여러분!

宗事는 종친 모두의 관심과 참여없이 는 그 어떤 일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더우기 宗事는 어느 특정한 종친 몇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종친 모두가 나의 일이 되어야 하고 그 의미와 자랑 또한 종친 개개인의 것이라 여겨야 합니다. 이러한 때 모든 종사는 비로소 제대로 추진될 수 있고 따라서 가문의 빛나는 역사와 숭조사상도 그 역사의 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한 시대가 이제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 천년의 시작은 새로운 인류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순천 김문의 중흥의 시발점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순천 김문의 중흥이 종친 모두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남은 역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역사를 맞이합시다!

그러하여 만대에 남을 훌륭하고 빛나는 가문으로 남갑시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 줄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종친여러분 댁내에 화합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公 告

順天金氏中央宗親會
第十期定期總會開催公告

會則第十二條一項에依據一九九九年第十期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開催함을公告합니다.(個別通知省略)

一九九九年十月十四日

順天金氏中央宗親會

會長 金鍾植

一 日時: 一九九九年十月三十一日
(十一時)

二 場所: 서울特別市中區長橋洞五番地
玄岩빌딩二十八層

한화 그룹 大講堂

三 連絡處: 中央宗親會

電話: 〇二四〇〇二五〇一一

四 前號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200m 거리
을지로2가중소기업은행三一빌딩 앞

三 參席範圍

一 中央宗親會全任員 및 代議員

二 全國地域宗親會任員과 뜻이 있는 宗親

四 議案

一 業務報告

二 第十期收入支出決算報告

三 第十一期豫算案審議

四 大宗報編纂에 關한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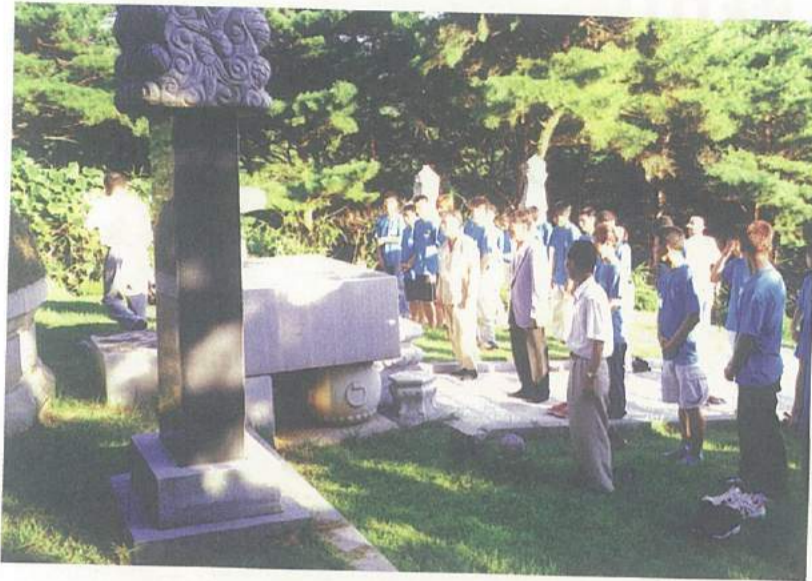
五 其他討議事項

全國地域宗親會長께서는 順天金氏宗報가 到着되는대로 宗親 및 全任員께 널리 連絡하여 많이 參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양강좌

충절과 승조의 자랑스러운 역사 되새겨

14기 대학생 교양강좌 성황리 마쳐... 대학생 33명 참가



- 대학생들 시조 묘소 참배 (전남 승주군 주암면 방축리)
- 동원재에서 강의받는 대학생들
- 전남 해남 방춘서원을 답사한 대학생들



제14기 교양강좌 참석 대학생

김동천	동아대 기계학과4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3-23
김법정	공주대 전자공학과 3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내리 297
김동규	목원대 건축공학과 3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906-5
김동민	연세대학원 화학과	울산시 남구 신정1동 1303-2
김세원	대구영신대 기계공학과	경북 고령군 고령읍 괴빈3리 556-23
김현석	동명대 화학과	부산시 남구 감만동 264-4
김수덕	대구에술대 도자공예2	인천시 서구 가좌동 158-1 명보주택 1-402
김영화	충북대 경영학과4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37-6
김현정	홍익대 도시건설공학1	인천시 남구 송의2동 294-4
김진우	호서대 경영학과1	천안시 쌍용동 389-3 현대1차 A 102-504
김기중	서남대 세무회계학과2	인천시 남동구 간석1동 434-12
김혜원	인천전문대 제어계측1	인천시 서구 가좌동 158-1 명보주택 1-402
김명표	목포대 컴퓨터공과 2	목포시 용해동 라이프2차
김재기	인하대 기계항공자동차2	서울 도봉구 쌍문동 158 한양A 703-303
김동성	충청대 품질관리과2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37-6
김수향	순천향대 생물학과2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산 66-2
김영규	대구영신대 전기과	대구시 달서구 파산동 119
김양미	안동대 기획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424
김길환	옥천도립대 식품공업과	충남 아산시 방축동 동아A 101-2008
김중석	호원대 전기통신학과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 392
김수연	건국대 자연과학과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김성배	서울대 지리학과	대구시 남구 대명1동 1222-27
김미라	안동대 보육학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김지영	전남대 법학과	광주시 서구 농성1동 제일파크 707
김중휘	전북대 경영학과	전주시 덕진구 송천1동 252-14
김재환	관동대 정보통신과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65-4
김문경	선문대 제어기계과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67
김문경	충남대 인문학과	인천시 남구 송의2동 294
김인희	고려대 정경학부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 513-1
김체리	대구보건대 보험세무	대구시 달서구 파산동 179
김은성	모스크바항공기술대 무기재료학과	광주시 북구 우산동 182-13
김태환	청주대 법학과	충북 충주시 교현동 남산A 108-203
김중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우성A 23-107

중앙총친회는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간 전남 승주군 주암면 시조 묘역 동원재(同源齋)에서 올해 하계 대학생 교양강좌를 열었다.

올해로 14번째 열린 이번 강좌에는 전국 각 처에서 33명의 대학생 종친 자녀들이 참가했으며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지역 종친회 종친들이 격려차 참석해 금일봉을 전달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교양강좌 첫날인 8월 10일 오후 입소식에서 중앙총친회 종식(鍾植)회장은 급변하는 세태속에서 특히 젊은이들의 승조정신의 퇴색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우리 순천김문은 그 어느 문중보다도 충절과 승조사상에 있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조들이 이룩한 위업과 정신을 스스로 확인하기를 바란다”는 요지로 뿌리정신을 강조했다.

입소 둘째날 아침 천안에서 온 김홍중친의 기체조(氣體操) 실습으로 시작된 강좌에서는 철영종친의 [족보의 연원과 찾는법] 강의를 비롯해 송연(대전산업대 교수), 두희(동국대 교수), 정순(서울 보건대학원 교수), 상욱(변호사), 춘희종친등이 사례(四禮)와 효도, 족보전산화와 건강관리 등을 강의했고 참가 대학생들은 시조묘소와 존영을 모신 영당참배, 그리고 난생처음 접해본 뿌리교육에 진지함을 더했다.

강좌 나흘째인 13일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돼 양경공/절재공/복저공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해남 방춘서원 삼삼사를 찾아 참배했으며 한화그룹 여천공장을 견학하고 공장축이 마련한 저녁을 대접받았다.

이어 강좌 마지막날인 14일에는 장소를 대전으로 옮겨 만인산 푸른학원을 운영하는 상대종친의 환대를 받았으며 특히 학원강당에서 베풀어진 수료식에서는 지난 86년 대학생 교양강좌를 처음으로 개설했던 수영 원로종친이 종식 회장을 대신해 수료장을 수여해 이번 강좌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참가 대학생과 격려차 참석한 종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절재공(節齋公) 묘소 참배 줄이어

KBS 드라마 「왕과 비」 방영 이후 관심 높아져

KBS의 역사드라마 왕과 비(王과妃) 방영 이후 절재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절재공 묘소에는 전국 곳곳에서 종친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7일에는 영남지역 종친회 50여명이, 그리고 같은 달 29일에는 안동친목회와 부녀회원 종친33명이 각각 절재공 묘소를 참배하고 공의 남기신 발자취와 위업을 기렸다.

순천김씨(順天金氏) 안동(安東)친목회

지난 순천 김씨 안동(安東)친목회와 부녀회는 지난 8월 29일 충남 공주 절재공(節齋公)묘소를 참배하고 공의 큰 뜻과 위업을 기렸다.

묘소 참배 후 친목회장 석산 종친은 송조정신(宗廟精神)을 드높이고 가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번 참배길에 나섰다 밝히고 참배를 통해 조선조 5백년 역사에 가장 으뜸인 인물이며 만고의 충신임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감동과 후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산회장은 공의 위업에 비해 묘소가

초라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업적에 걸맞는 정부차원의 묘소정비(성역화)와 재실 보존등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영남지역 종친회

영남지역 종친회(회장, 가연종친) 종친 50여명은 지난 8월 7일 충남 공주 절재공 묘소를 참배하고 위대한 업적과 뜻을 기렸다.

이날 가연 회장은 참배를 통해 가문의 가장 자랑스러운 조상 묘소를 뒤늦게 참배한데 대해 송

구함을 느꼈다고 말하고 이를 계기로 날로 퇴색돼가는 지손들의 송조정신을 일깨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이날 묘소 참배 후 종친들은 조선조 광해군때 양주목사를 지낸 수북공(水北公 興國)이 낙향해 가까운 벗들과 만년을 보내시던 부여 수북정(水北亭)에 들러, 점심을 겸한 지역종친회 이사회를 열고 조상들의 발자취를 회고하면서 덕담을 나누는 한때를 가져 이번 참배행사의 의의를 더했다.



순천 김씨 안동(安東) 친목회와 부녀회,절재공 묘소 참배후 기념촬영



영남지역 종친회원 부여 수북정(水北亭)에서 기념촬영

절재공(節齋公) 가훈(家訓) 제작보급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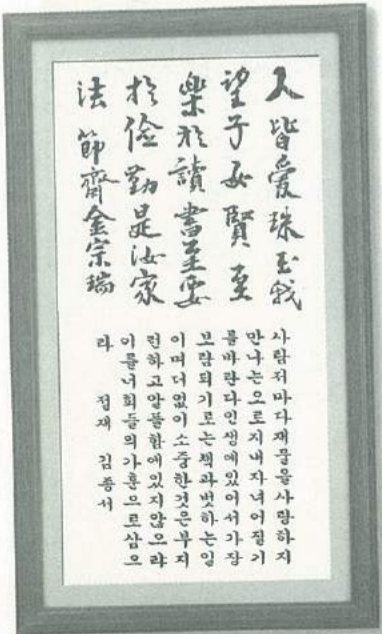
친필로는 국내 유일... 덕목과 도리의 가치 일깨워 절재공 위상정립 사업 일환, 실비 2만원에 보급

중앙종친회는 '절재공의 가훈을 순천김문의 가훈으로 정하자'는 취지아래 이 가훈을 인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절재공이 남긴 이 가훈은 친필로는 현재 일본 천리대학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몽유도원도 시첩의에 국내에 있는 유일한 역사적 가치가 소중한 유품으로 서울대 도서관에 그 진본이 소장돼 있다.

절재공이 만년에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은 고의 인품(人品)과 정신은 물론 후대를 생각하신 지애로운 심성이 묻어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만대에 걸쳐 명심하고 지켜야 할 덕목(德目)과 도리(道理)로 학계로부터 그 가치와 소중함을 인정받고 있다.

중앙종친회는 절재공 위상정립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이번 가훈제정을 전국 모든 종친으로 확대하기 위해 본격적인 가훈제작에 들어가 개당 실제제작비 (2만원)만 받고 보급하고 있다.



천안/아산 종친회 판서공(判書公) 묘소 참배

천안 안산 종친회(회장 泰淵) 25명의 회원 종친 등은 지난 4월 11일 충남 보령군 웅천면 두물리에 모셔진 판서공(判書公 晦 有儉)의 묘소와 신도비를 참배하고 보령지역 종친회에 금일봉을 전하면서 종친간의 우의를 다졌다.



중앙종친회 회장단 회의 개최

대동보 편찬 문제등 협의 정기총회, 10월 31일로 확정



중앙종친회는 지난 9월 17일 오전 중앙종친회 회의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소집, 개최하고 대동보 편찬 문제 등을 협의했다. 종식회장은 이날 "순천 김문의 위업이 될 대동 편찬문제는 현재 자료수집이 방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대동보 편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종친의 화합과 협조를 당부했다. 종식회장은 중앙종친회를

법인화 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모체로 종친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도 조만간 현실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0기 정기총회 개최일자를 10월 31일(일)로 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중앙종친회 청년간사로 임명된 승연 종친(대전산업대 교수)이 나와 족보전산화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중앙종친회 人事

(9월 1일 字)

- 간사장 김오연(五淵)
- 종무간사 김철영(哲永)
- 청년간사 김승연(承淵)
- 섭의간사 김한철(漢喆)

설명했으며 종식회장은 신임간사장 오연(五淵)종친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종식회장을 비롯해 문재·창원·상용·학원 부회장이 참석했다.

중앙종친회, 안천(安千) 종친에 감사패 전달 세장비(世葬碑) 건립에 헌신적으로 공로

중앙종친회는 지난 4월 전북 순창지역 절재공 후손들의 묘역단장과 세장비 건립을 헌신적으로 주도한 안천(安千/절재공파) 종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공로를 치하했다.

전북 순창군 금과면 남계리 일대 향산 / 능산

등에는 계유피화를 면하기 위해 이곳으로 피신해온 절재공 3남 휘 승유(承流)공의 자손들이 대대로 안장돼 광범위한 묘역을 이루고 있으며 후손들은 지난 4월 16일 이 묘역을 단장하고 선산(先山)임을 알리는 세장비를 건립했다.

원로종친위로아유회

1박2일간, 선조묘소 참배 유허지(遺墟地) 돌아봐

중앙종친회는 지난 5월 28일 원로종친 30여명을 초청해 안산/부여/공주지역에 모셔진 선조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선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1박 2일간의 원로종친 초청 위로 아유회를 가졌다.

이날 오전 한화그룹이 제공한 버스편으로 서울을 떠난 원로종친 일행은 먼저 경기도 안산에 들러 장의공(壯毅公/휘汝叻 1548~1592)의 사손(嗣孫)인 상억(95세)과 석연(錫淵)부자의 안내로 장의공 이하 다섯분 선조묘소를 참배했다.

또 이날 오후 부여에 도착한 일행은 일정(一貞) 선정(善貞)종친의 안내로 조선조 선조때 문과(文科)에 급제, 광해군때 양주목사를 지낸 수북공(水北公 휘 興國 1557~1623)이 낙향해 마음을 터놓고 가까운 벗들과 만년을 보내시던 수북정(水北亭)에 올라 선조의 흔적을 더듬었다.

원로종친 일행은 이날인 29일 계룡산 동화사에 들러 조선조 단종때 계유피화로 수난을 당한 절재공의 신위를 배향하고 있는 숙모전(肅慕殿)을 방문하고 지평공과 종손 동택종친의 안내로 공주군 장기면 발골지평공/총제공/절재공의 묘소를 참배했다.

이어 오후에는 한화그룹의 창업자로 조국의 경제 증흥에 헌신하신 현암(玄岩) 종희공(鍾喜公)의 공주군 보물리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공의 업적을 기리고자 건립된 공적비 앞에서 생전의 모습을 회고했다.

한편 이번 원로종친 초청 행사에는 충주의 대연 종친을 비롯해 명재, 우영, 수영, 규남, 동영, 병일, 인희, 현 간사장 오연 종친이 함께 했으며 전 간사장 호연, 철영, 승연종친이 동행, 어른들의 나들이길을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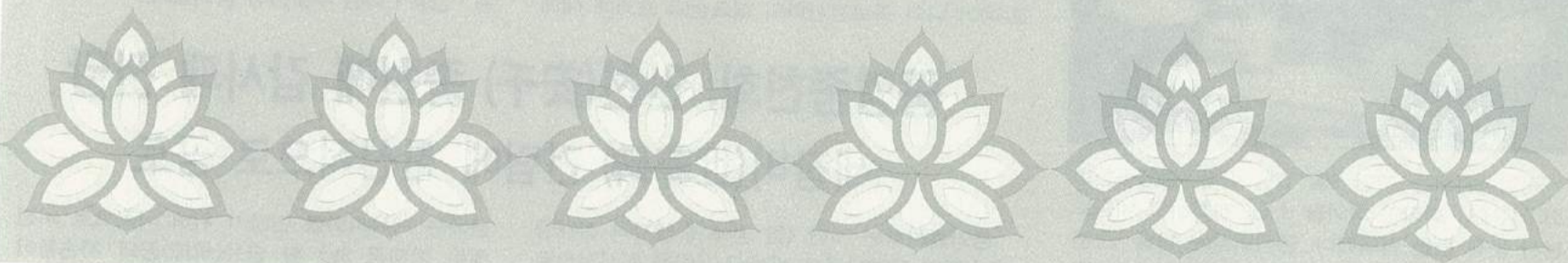
安山瓦洞 四世忠烈門을 둘러본 원로 종친 일행



원로종친-安山廣德山에 모셔진 壯毅公 諱 汝叻 租의 묘소참배

특 집

始祖의 上系에 관한 「怪說의 正體」, 과연 무엇인가?



一. 머리말

우리 순천(順天) 김(金)씨의 시조는 평양군(平陽君) 휘 총(摠)이다. 시조계서는 자(字)를 원령(元領)이라 하고 문·무·예(文武藝)에 두루 능통하였으며, 신라 종성(宗姓)으로서 신라 말엽인 제47대 헌안왕(憲安王)때 인가별감(弓鷹別監)을 역임하였고 승평(昇平) 즉 지금의 순천을 잘 다스리어 백성들이 모두 즐거워 하였으며, 사후에는 평양군(平陽君)에 봉하여 지고 승평부의 동쪽 진례산(進禮山)에 안관사(安官祠)라 하는 사당을 세우고 해마다 제향(祭享)하였으며 지금도 순천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부민(府民)이 모두 한결같이 추앙하고 있다.

그러나 시조의 생졸(生卒)연대나 경력(經歷)등 기타의 사항에 관한 문헌이 전하여 오지 않은 까닭에 상고(詳考)할 길이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지금으로부터 약 천이백년 전 아득한 옛날의 일이라 나라의 역사와 함께 정확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 하겠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이 시대 타문(他門)의 상계(上系)도 비슷한 처지라 비록 우리 김문만의 불행은 아니라 할 수 있다.

二. 문제점과 출처(出處)

필자는 최근에 우리 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괴이한 현상을 보았다. 우리의 시조이신 평양군 휘 총(摠)의 상계에 관하여 근거없는 괴설(怪說)이 난무하여 처음으로 이를 접하는 우리 후손들을 매우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지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어떤 종친은 무슨 위대한 발견이라도 한 양 이 괴설을 책임없이 전파시키고 있기에 그 내용과 출처(出典), 그리고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우리 후손들의 정확한 인식과 올바른 자세를 가짐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필을 들었다.

시조의 상계에 관하여 그 근거(根據)가 명확하지 아니한 세계도(世系圖)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시조이신 평양군계서는 신라 제47대 헌안왕의 아들이라는 주장은 1901년(辛丑, 高宗 光武5년)에 간행된 순천김씨 철원(鐵原) 공파보와 나주(羅州) 김씨세보등에 실려있다. 둘째, 1980년(庚申)의 철원공파보는 1901년도판 구보(舊譜)의 주장은 그 논거를 이해할 수 없다고 스스로 자인하면서 신라 제48대 경문왕(景文王) → 서자 궁예(弓裔) → 장자 청광(靑光)보살 → 자 총(摠)의 세계도를 주장하였고, 이보다 앞서서 경주(慶州) 김씨에서 파생된 많은 김씨의 세보에도 이 주장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주장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조선조 말엽이었다. 고종 원년(1864년, 甲子)의 증광(增廣) 문과에 급제하고 참판과 대제학을 역임한 경주인 석능(石陵) 김창희(金昌熙)가 경주 김씨의 분파(分派)된 내려과 그 족관(族貫)을 지방별로 만들어서 조상의 계통을 바로 잡고 모두가 동족관계임을 밝힌 김씨분관록(金氏分貫錄) 1책(冊) 33장(帳)을 편찬, 간행하면서 이상한 세계도가 처음으로 출현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라김씨대종원(新羅金氏大宗院)이라는 단체에서 1970년대 후반에 발간한 신라김씨사(新羅金氏史)에 대보공(大輔公)

발달된 현대 과학문명에 편승하여 시조의 상계에 관하여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허언(虛言)이 난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 후손들은 전후의 사안을 냉철히 판단하여 조금이라도 이에 미혹(迷惑)됨이 없기를 당부 드리는 바이다.

김알지(金閔智)의 선원계보(璿原系譜)를 수록하여 널리 배포하였고, 근간에 속간되고 있는 경주김씨 계열의 김씨 족보에 이 세계도를 검토없이 전재(轉載)된 것이 인쇄술의 대중화와 통신매체의 급속한 발달에 편승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三. 우리의 시조에 관한 기록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의 기록은 흔하지 않다. 따라서 그 시대의 인물에 관한 기록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일부가 첨삭(添削)되어 구전(口傳)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일부는 왜곡, 과장되어 전하여 오기도 한다.

우리의 시조이신 평양군 휘 총(摠)에 관한 기록 또한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같은 고대의 각종 사서(史書)에서 우리 김문의 시조에 관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시조에 관한 것으로 처음 발견되는 공식적인 기록은 1481년(辛丑成宗12년) 서거정(徐居正) 등이 왕명을 받들어 찬술, 간행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순천도 호부편에 “金摠仕甄萱 官至弓鷹別監 死爲府城隍神”(김총은 인가별감을 지냈고 사후에는 순천부의 성황신이 되시었다)고 하였으며, 승평지(昇平誌)는 “金摠有文武藝 守平陽爲政仁厚民樂 附焉因祀 于府東進禮山安官祠”(김총은 문·무·예에 두루 능통하였고 순천 고을을 잘 다스리어 백성들이 모두 즐거워 하였다. 사후에는 부의 동쪽에 있는 진례산에 안관사라는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북저공(北溍公)의 증손인 휘 노득(魯得)공이 1710년(庚寅, 肅宗 36년)에 지은 평양군가찬(平陽君家纂)에 의하면 “公諱摠字元領 稱諸家牒 新羅宗姓 官至弓鷹別監 封平陽君 以順天爲貴自公始矣 公性寬度弘勇略蓋世嘗 居昇平以村內 . . .”(공의 이름은 摠, 자는 元領이다. 여러 가첩을 상고하여 보니 신라의 종성으로서 벼슬이 인가별감에 이르렀으며 평양군에 봉하여 졌는데, 공으로부터 순천을 관향으로 하였다. 공의 성품은 도량이 매우 너그럽고 용맹하며 지략이 뛰어 났었다.

일찍이 승평에 살았는데...) 라고 하였다. 또한 1852년(壬子, 哲宗 3년) 휘 성해(性海)공이 지은 평양군영정이안기(平陽君影移安記)는 “惟我金氏之 肇祖高麗新羅憲安王時以宗姓 封平陽君... 高麗太祖建國初崇奉其遺德 建一祠于昇平之東 賜額以安官...”(우리 김씨 시조의 이름은 摠이라 하며 신라



시조(始祖) 평양군(平陽君) 김충(金攄)의 영정

현안왕(857년 ~ 861년 재위)때에 종성으로서 평양군에 봉해졌으며... 고려 태조가 건국한 초기에 공의 유덕을 숭봉하여 승평 동쪽에 사당을 세우고 안관사라 사액을 내렸다...) 하였으며, 우리 김문의 증조이신 양경공(襄景公) 휘 승주(承)의 묘비문을 비롯하여 수 많은 현조(顯祖)들의 비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여 주고 있다.

다만 시조이신 평양군의 생몰연대가 실전(失傳)되어 확실하지는 않으나 신라 제47대 현안왕의 재위기간이 857~861년이고 또한 시조께서 인가별감을 역임하신 시기가 공의 장년기로 본다면, 시조 평양군의 출생시기를 800년 전후로 추정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일 것이다.

四. 궁예(弓裔)론

궁예는 신라의 종성으로 신라 현안왕 의정(誼靖)의 아들이라는 설과 경문왕 응림(鷹林)의 아들이라는 설이 있는데, 864년(甲申 경문 왕4년) 5월 5일 외가에서 출생하였다. (三國史記: 新羅人 姓名氏 考第四十七代憲安王誼靖 母憲安王嬪御 失其姓名或云四十八景文王鷹林之子 以五月五日 生於外家)

자라서 세달사(世達寺)에 들어가 중이 되고 선종(善宗)이라고 하였는데 그 후에도 불법과 승을 구애되지 아니 하였으며, 그 기상이 당당하고 담기가 있었다. (史記: 便去世達寺 今之興教寺是也 祝髮爲僧 自號善宗) 892년(壬子, 眞聖女王 6년)에 북원(北原, 지금의 원주(原州))의 적수 양길(梁吉)의 수하로 들어갔으며 901년(孝恭王 5년)에 왕이라 자칭하고 국호를 마진(馬震)이라 하였으며 한수 이복의 땅을 대부분 평정하고 위세를 크게 떨쳤다. 궁예는 청광(靑光), 동광(銅光), 신광(神光) 세 아들을 두었는데, 후일에는 스스로 강성함을 자만하여 915년(神德王 4년)에는 실정(失政)을 간하는 부인 강(康)씨와 청광, 동광 두 아들을 참혹하게 살해하는 패륜을 자행하는 등 포악한 정치에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었다.

918년(景明王(경명왕) 2년) 6월, 왕건의 부하 장수에 의하여 ㉞겨난 궁예는 변복을 하고 도망가다가 부양(斧壤, 지금의 平原)의 백성에게 잡혀 죽었다. (史記: 變服逃入山林尋爲釜壤民所害...)

우리 김문은 신라의 종성으로서 경주에서 분파되었고, 시조이신 평양군 이후부터 순천 김씨라 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설사 시조의 상계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우리 김문의 시조는 평양군이다.

五. 맺음말

우리의 시조 평양군과 궁예의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성품과 행적등을 참고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론의 핵심사항은 두 사람 사이의 계대(系代)문제 즉 시조께서 궁예의 손자라는 괴설(怪說)을 해명하는 것인 만큼 그 출생연도 활동시기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궁예는 신라 현안왕이나 경문왕의 아들이라 하였으며 그의 출생은 864년이고 사서에 나타난 그의 활동시기는 891년 이후부터 918년까지이다.

그리고 우리의 시조이신 평양군의 출생시기는 명확치 아니 하다. 857년 ~ 861년 동안 재위한 현안왕 때 인가별감을 하시었고 그 후에 순천을 다스리었다고 모든 기록이 전하고 있으므로 800년 전후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으며 그 후에 순천을 다스렸고 후손이 순천에 세거하면서 그 곳을 관향(貫鄕)으로 삼았다.

그런데 궁예의 아들이 청광이고 청광의 아들이 휘 총이라고 하는, 즉 우리의 시조 평양군께서 궁예의 손자라는 괴이한 계대(系代)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평양군 휘 총의 출생이 궁예보다 약 일주갑(一周甲)이나 앞서고 있거늘, 자기의 친손자보다도 60여년이나 나이가 어린 친조부가 있다는 결론이니, 한 마디로 어불성설의 허구(虛構)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망발(妄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김문의 시조이신 평양군의 상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의문이 남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확실한 사서나 문적이 전하여 오지 않으므로 우리 후손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다. 다만 우리 김문은 신라의 종성으로서 경주에서 분파되었고, 시조이신 평양군 이후부터 순천 김씨라 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설사 시조의 상계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우리 김문의 시조는 평양군이시고 그 상계는 경주 김씨일 뿐이다.

1988년 초에 중앙종친회 초대 간사장이신 고 종기(鍾起) 족속과 필자가 신라법김씨대종원(新羅法金氏大宗院)을 방문하여 우리 종친회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신라법씨사(新羅法氏史)에 잘못 수록된 선원계보(璣源系譜)를 수정할 것을 요청, 차후의 발행분부터 시정할 것을 약속받은 바 있음을 부기하여 둔다.

끝으로 발달된 현대 과학문명에 편승하여 시조의 상계에 관하여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허언(虛言)이 난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 후손들은 전후의 사안을 냉철히 판단하여 조금이라도 이에 미혹(迷惑)됨이 없기를 당부 드리는 바이다.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宗務幹事 金哲永 考

忠義列傳

(7)

節齊 金宗瑞

崔完秀 作
宋榮邦 畫

題字 = 南田 元沖植

그러나 승정원의 승지들은 즉각 이의 철회를 요청하며 왕비가 위독하였을 때 내전에서 정근기도를 행한 것은 사제가 급박하여 차마 말리지 못했지만 사경불사만은 안된다고 했다. 만약 부처가 영험이 있다면 왕비가 돌아갔겠느냐는 것이다.

화가 난 세종은 너희 중에 부모를 위해 불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고 꾸짖으며 너희들은 밝게 의리를 아는데 나만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니 의논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말로 그 가 소로움을 힐책한다. 그리고 내친 김에 사간원과 사헌부 집현전에 연락하여 사간 변효경(下孝敬), 집의 정창손(鄭昌孫), 교리 하위지 등을 불러서 이 뜻을 전하니 정창손과 하위지가 이의 중지를 극력 간청한다.

세종은 정창손이 예조판서 정감손의 아우이니 앞장서서 반대하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욱 기승하여 반대하는 것을 보고 내심 패색하게 생각한다. 정감손의 장녀가 세자의 후궁으로 들어와 있어 정창손은 세자의 처삼촌이 되는 셈인데 안사돈의 상사에 추선공양 올리는 일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나서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는가. 정감손과 정창손은 세종이 신임하여 일찍이 김종서에게 함길도 도절제사를 맡기어 복변을 개척할때 함길도 감사를 시켰었던 정흥지(鄭興之:1378~1439)의 아들들이었다. 이에 세종은 형제들에게서 실망하고 정감손을 예조판서로 두어 심왕후의 장사를 치르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임명하지 불과 석달만에 정인지로 교체하게 되는 것이다.

드디어 세종은 3월 28일에 집현전 수찬 이영서(李永瑞: ?~1450)와 돈령부 주부 강희안(姜希顔:1418~65)등 명필로 소문난 문사들에게 명하여 안평대군이 양자로 가 있는 성녕대군 저택에서 금자(金字)로 불경을 써내게 한다. 이 일은 안평대군의 사촌 처남이며 불교 좋아하기로 소문난 인순부 소윤 정효강(鄭孝康)이 주관해 나가도록 하였다. 강희안은 돌아간 심왕후 여동생의 장남이었으니 세종대왕의 이질(姨至)이었다.

사경불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10월 15일에 성녕대군의 원찰인 고양 대자암(大慈庵)에서 전경법회(轉經法會:사경이 끝나면 경전을 돌려가며 펼쳐보는 의식을 치르는데 이를 전경법회라 한다)를 성대하게 치르기로 하니 10월 4일 우찬성 자리에 있는 정감손이 이 불사의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의정부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라 한다. 세종은 이를 몹시 불쾌하게 여기고 이미 사경을 시작할 때 대신들이 해도 좋다고 해서 시작한 일인데 이제 다 이루어져서 펴보는 의식을 거행하려는데 이를 중지하라는 것이 이치에 맞는 소리냐며 정감손을 크게 꾸짖고 우의정 하연이 앞뒤 주장을 달리하여 허물을 임금에게 돌리려 한다고 질책한다. 그러자 하연은 이제 불경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어찌 펼쳐보이지 않겠느냐며 반대의견을 철회한다. 그리고 나서 흥년이 계속되고 있으니 소규모로 잠시 동안만 베풀었으면 좋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한다.

이때 세종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고 있던 김종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여 세종이 뜻대로 할 것을 당당하게 주장한다.

「신은 작위가 이미 극에 이르렀고 성은(聖恩)이

지극히 두터우니 다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감히 부풀리는 말로 명예를 낚시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신(老臣)을 좌우에 두셨으므로 불의(不義)를 보고 차마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예감(審鑑:임금의 밝은 식견)을 번거롭게 할 뿐입니다. 오직 위에서 헤아려 실행하실 뿐입니다.」

얼핏 보면 세종에게 김종서만 아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시류에 편승하여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 자신을 위장하거나 용기가 없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얼마든지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말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김종서가 얼마만큼 세종에게 충성스런 신하였던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래서 세종은 김종서를 그렇게 믿고 의지하였을 것이다. 김종서의 이런 기탄없는 직언에 의정부 대신들이 의표를 찌리어 더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자 세종은 이 기회에 불사 규모를 가지고 시비하는 것조차 봉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중 30~40명을 모으고자 하는데 이는 매우 간략한 것이다. 하지 않으려면 그만이었지만 그것을 한다면 어찌 다시 줄이겠는가. 비록 중의 수효를 줄인다 하더라도 내 덕에 무엇이 드러남이 있겠는가. 또 누가 능히 간하여 이것을 그치게 하였다 하겠는가. 그것을 다시 말하지 말라」

얼핏 보면 세종에게 김종서만 아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시류에 편승하여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 자신을 위장하거나 용기가 없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얼마든지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말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김종서가 얼마만큼 세종에게 충성스런 신하였던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시류에 영합하려는 무리들이 어찌 명예를 떨칠 기회를 놓치겠는가. 사헌부 장령 강진(姜晉)이 다음날인 10월 6일 두차례에 걸쳐 중지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고 그 다음 7일에는 사간원 좌정언 윤배운(尹培)가 다시 불사를 정지하라고 상소하며 10월 9일에는 정창손이 다시 장문의 상소를 올려 불사 중지를 간청하는데 「일문이 모두 도륙된다 해도 직분을 버리지 못한 죄를 막지 못한다느니 후에 역대 호불(好佛)하던 임금과 같이 역사에 남으리라는 등의 불손한 언사를 기탄없이 구사한다.

이에 애초부터 정창손을 패색하게 보고있던 세종은 간사하게 말을 꾸며 임금을 속이는 자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크게 꾸짖고 정창손과 강진 등을 의금부에 하옥하고 좌부 승지 이사철(李思哲:1405~56)로 하여금 국문하게 한다. 그러자 직제한 이계전(李季甸:1404~59)을 비롯한 성삼문 등 집현전 학사들이 언론을 맡은 관리들이 말을 잘못했다 하여 벌을 주면 언로가 막히니 풀어달라고 주청하니 세종은 못이기는 척 하며 수양대군을 시켜 이들을 풀어주게 하는데 정창손과 강진만은 용서하지 않는다.

정창손은 근시의 직임을 거치고 단정한 선비의

이름을 얻은 자인데도 남보다 늦게 반대했다는 혐의를 살피봐 조희하는 날 각 사 관리가 불사에 쓰일 물건을 대느라고 조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고 장차 대자암에서 불사를 베푸는 사실을 알았다는 등 거짓말을 꾸며대었다는 것이다. 간사하고 불초(不肖)한 소인배이니 장차 어떤 짓을 못할까보나 면서 몇달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추궁하여 실정을 밝히겠다고 다짐한다.

과연 세종은 사람을 정확히 알아보는 지인지감(知人之鑑)을 타고났었던가 보다. 정창손이 뒷날 성삼문을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이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을 때 이를 고변하여 수많은 충의지사들과 세종이 그렇게 사랑하던 왕세손 단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이었으니 말이다.

어떻든 세종은 10월 15일에 대자암에서 돌아간 왕비를 위해 전경법회를 크게 베푸는데 승려 1천 여명이 모여 7일 밤낮을 계속하였다한다. 떡과 옛과자 음식 등이 산같이 쌓이고 주옥(珠玉)으로 정교하게 등을 만들어 장엄하였으며 금자·은자 사경의 경집은 황금으로 용을 그려 장식하였다 한다. 왕세자와 대군 제군 등 왕실 종친과 내외명부 등이 참여하는 큰 불사였으니 그 성대한 규모가 어떠한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대자암은 지금 벽제 조금 지나 대자리에 있었던 절이다.

충의지사들이 거의 다 그렇듯이 김종서도 인재를 아끼고 사람대접을 극진히 하는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세종 28년 12월 1일에 세종인 의정부 대신들을 불러놓고 정사를 의논하는 자리에서 서반(西班牙)지, 즉 무관직들의 승진기준을 과거에는 경계하고 수비하는 일의 노고를 참작하기도 하였었는데 지금부터 동반(東班)지, 즉 문관직의 예에 따라 품계를 올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묻는다.

(계속)

※이 글은 1997년 6월 3일부터 7월 16일까지 <한국경제신문>에 게재됐던 내용입니다.

임원 년회비 수납안내

중앙종친회는 임원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년회비와 세대당 년회비, 그리고 篤志宗親의 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每期마다 거르지 않고 정성껏 납부하신 회원님과 篤志宗親의 찬조금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1기(1999.4.1~2000.3.31)에 납부하셔야 할 임원 년회비는 제9기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비납부액

회장	년	200만원 이상
부회장	년	50만원 이상
운영위원	년	20만원 이상
고문 명예회장	년	10만원 이상
감사 감사이사	년	10만원
대의원	년	5만원
세대당 년회비	년	2만원

온라인 계좌

농협	069-01-212885
한빛은행	146-003175-02-501
우체국	012351-0134884
지로번호	7637405

* 위의 온라인구좌 또는 지로로 납부하신후 그 내용을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幹事長〉

임원년회비 수납현황

고문	김준연 100,000원
김인배 200,000원	김병기 100,000원
김대연 100,000원	김하종 100,000원
김두희 100,000원	김종구 100,000원
김도연 100,000원	김동석 100,000원
	김명환 100,000원
부회장	김정록 100,000원
김민연 500,000원	김일환 100,000원
김동오 500,000원	김석연 100,000원
김원걸 500,000원	김재근 100,000원
김대영 500,000원	김한수 100,000원
	김상만 100,000원
운영위원	김동업 100,000원
김광재 300,000원	김상기 100,000원
김동일 200,000원	김동석 160,000원
김동준 200,000원	김철성 100,000원
김상용 200,000원	김기연 100,000원
김영창 200,000원	김봉희 100,000원
김동철 200,000원	김두연 100,000원
김정일 200,000원	
김병진 200,000원	대의원
김문환 200,000원	김진협 50,000원
김준용 200,000원	김완선 50,000원
김성환 200,000원	김동이 70,000원
김해용 200,000원	김기석 50,000원
김종성 200,000원	김현정 50,000원
김동순 200,000원	김광주 50,000원
김학봉 200,000원	김동욱 50,000원
김준환 200,000원	김석남 50,000원
김기성 200,000원	김종업 50,000원
김우영 200,000원	김기연 50,000원
	김남수 50,000원
이사	김동일 50,000원
김동경 100,000원	김시혁 50,000원
김규남 100,000원	김규석 50,000원
김동수 100,000원	김재록 50,000원
김병균 100,000원	김현국 50,000원
김범배 100,000원	김석연 50,000원
김병달 100,000원	김영광 50,000원
김용열 100,000원	김영희 50,000원

찬조내역 소개

99 하계대학생 교양강좌

종식 중앙종친회장	8,100,000원
중앙종친회	600,000원
김동영	50,000원
김두원	300,000원
김상용	200,000원
김정일	100,000원
김동철	100,000원
김두희	50,000원
김병석	30,000원
김동훈	30,000원
부산종친회	과일 2상자
김정일	과일 5상자
김보연	음료수 1상자
김상욱	음료수 10상자
김정태	음료수 3상자

김봉빈	음료수 3상자
김길홍	음료수 3상자
김동수	수박10통
김동희	수박 10통
목재과 회장	탁상시계 40개
목재과	중식 45분

찬조금

(주)한화	2,000,000원
김인배	300,000원
김문재	100,000원
김철희	200,000원
김명재	100,000원
김광홍	50,000원
김종구	100,000원
김철희	2,000,000원

중앙종친회 찾아주신분

이인헌	도봉구 창5동
학원	절제공관회장
성복	부산시 남구 대연5동
정택	경기 의왕시
명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명재	안양시 박달동
광홍	서울 은평구 신사2동
동영	경기 일산시
문재	서울 관악구 봉천동
상열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하이트생수 城北代理店

강남상사 代表 金東守

서울 성북구 돈암2동 616-100
전화 : (02)928-0679, 677-5595
휴대폰 : 011-332-0679
호출 : 015-8313-0679

중앙종친회 사무실 안내



주소

138-160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8-1번지 한화빌딩 303호

전화

(02)400-2501~2502 / FAX : (02) 400-2505

清溪電業株式會社

전기공사 · 소방설비공사 · 수배전반 · 건설제작
(동자부승인 제1종전기공사업 193호)

대표이사 **金文載**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11-7(청계빌딩)
본사전화: 265-6558,
275-0732~3
공장전화: 877-6227
자택전화: 877-6244

■ 중앙중친회 부회장
■ 襄景公派 寧州公
19대 손

鳥嶺産業株式會社

사장 **金喆熙**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56-8
전화: (02)572-5059,
573-5968
자택: 서울시 강남구 압구
정동 현대①77-803
전화: (02)543-5439

■ 중앙중친회 부회장
■ 襄景公派 忍百堂公
14대 손
■ 서울중친회장

(株)東南特殊運輸 (株)東南商運

대표이사 **金東洙**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
544번지
사무실: (0661)755-0124
755-0125
FAX: (0661)755-0188
자택: (0661)52-8441
호출: 012-610-8913
휴대폰: 011-622-3125
(특수화공약품운송전문)
(16K 18K 20K 28K)

■ 중앙중친회 운영위원
■ 襄景公派 監察公
17대 손

법무사 **金東吾**



사무실: 문경시 점촌동
244-8
사무실: (0581)555-
4887~8, 2740
자택: (0581)555-4031

■ 중앙중친회 부회장
■ 襄景公派 判事公
17대 손

一夏합동법률사무소

중앙중친회 법률고문
변호사 **金亨民**



사무실: 서초구 서초동
1689-5 삼성빌딩 4층
전화: (02)3477-4200
FAX: (02)3477-0609

■ 중앙중친회 운영위원
■ 절제공 18대손

한서화물자동차(株)

호남정기화물 · 한서택배제주특송

회장 **金相容**



광주광역시 서구 양3동 397-13
전화: (0652)211-1271~13
(02)209-6114
(02)571-55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6
한국화물트럭터미널 내
호남정기화물자동차(주)

■ 중앙중친회 운영위원
■ 襄景公派 南陽公
16대 손

대성상사

(427호)

사장 **金深淵**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37
직장: (02)744-4890,
766-3648
자택: (02)766-5233

■ 중앙중친회 감사
■ 襄景公派 判事公
16대 손

대문목재(株)

미술품 · 합판 · 건축재 · 가구재

대표이사 **金都淵**



인천시 서구 기좌1동
178
전화: (032)577-7733,
578-7878, 573-1877
FAX: (032)579-1870

■ 중앙중친회 운영위원
■ 襄景公派 判事公
16대 손

고려상건 고려건설팅

대표 **金政壹**



광주시 서구 화정동 928-2
금호타운 105-601
전화: (02)514-3285
(062)373-7166~7

■ 중앙중친회 운영위원
■ 襄景公派 御史公
18대 손

세무사 **金沅杰**



사무실: 안동시 운봉동
116-29
사무실 (0571)54-1773
자택 (0571)55-4197

■ 중앙중친회 부회장
■ 襄景公派 判事公
18대 손
■ 영남중친회 이사
■ 博新會 안동지회장

金大永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316
사무실 (0581)71-5588
자택 (0581)71-5500

■ 중앙중친회 부회장
■ 襄景公派 翊贊公
16대 손
■ 문경중친회 회장

<전문공사업> 合同技工社

대표 **金東胡**



사무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05-6
전화: (02)409-7723
FAX: (02)409-7726

■ 중앙중친회 이사
■ 襄景公派 翁谷公
13대 손

신정수영장(완벽한 수질관리, 최고의 강사진)
신정헬스(고객의 체력관리와 몸매관리)
신정사우나(황토사우나, 황토방, 야간 가등)

사장 **金活龍**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223-3
전화: (052)261-3800
(신정수영장)

■ 중앙중친회 운영위원
■ 襄景公派 承盈公
18대 손

金料元神經外科醫院

원장 의학박사 **金料元**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01
전화: (062)228-2471
자택: (062)2223-
7200

■ 중앙중친회 부회장
■ 襄景公派 進士公 15대손
■ 광주서목사회 명예회장
■ 광주전남 불교신도회장
■ 광주박물관회 회장

(주)근하공영
(주)흥인운수

대표 **김삼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07-121
전화: (02)972-2331

■ 중앙중친회 운영위원
■ 襄景公派 橫城公
15대 손

광일공업(주)

대표 **김광재**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능리 34-3
전화: (0331)234-3161~2
FAX: (0331)235-4518

■ 중앙중친회 운영위원
■ 襄景公派 參判公
14대 손



건강을 위해 한번 더, 맛을 위해 하나 더
고객의 만족과 최고의 제품을 위해
빙그레가 앞서갑니다

새로운 발상으로 한발 앞선 제품을 선보여온 빙그레의 연구개발 정신입니다

빙그레의 새로운 발상, 새로운 제품은 더 좋은 제품에 대한 도전정신과 연구개발의 열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목장에서 직접 집유한 생우유를 사용해 만든 아이스크림 투게더,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캡슐 요구르트 닥터캡슐, 새로운 차원의 가공우유 바나나맛 우유, 100% 콩기를 라면 매운콩라면 등, 고객이 원하는 보다 나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빙그레의 노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식품의 역사를 새롭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700년 세월을 이겨온
팔만대장경의 비결, 참숯!

참숯 부착
천연황토, 천연나무칩 부착

참숯이란? 참나무로 만든 참숯은 해로운 세균과 냄새를 흡착하는 미세한 탄소 구멍이 아주 많아 습기조절, 냄새제거 등의 정화기능이 우수하며, 나무가 토양에서 빨아올린 천연 미네랄이 풍부해서 원적외선 및 음이온 등 생활활동에 유익한 성분들을 발산합니다.
* 한화 나무나라 참숯은 한반도 백두대간인 강원도 태백, 영월, 정선의 30년생 참나무를 재래식 탄요법으로 만든 참숯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한화 나무나라 참숯 탄생!

대한민국 주부님들! 참숯 건강바닥재로 신바람나게 사세요.

고려인들의 호국영원을 700여년간 간직해온 팔만대장경! 비밀은 바로 우리 선조들의 참숯을 활용한 지혜 덕분입니다. 옛부터 선조들은 왕실 무덤에 습기조절 작용으로 방부제 역할을 하는 숯을 묻었으며, 집을 지을 때 집터에 수맥이 지나갈 경우 습도조절을 위해 숯을 황토와 섞어 지반을 다지는 공사를 했는데, 해인사 팔만대장경, 석굴암, 다보탑, 금산사 등의 지반에 다량의 숯이 묻혀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화 나무나라 참숯 특징

-  **냄새제거**
악취를 흡수하여 없애줍니다
-  **음이온 발생**
생체에너지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  **원적외선 방사**
인체활동을 도와줍니다
-  **특수 코팅**
청소가 더 쉽고 간편해졌습니다

국내최초 참숯 건강바닥재



본사 : (02)729-1452, 1462 <http://hcc.hanwha.co.kr>